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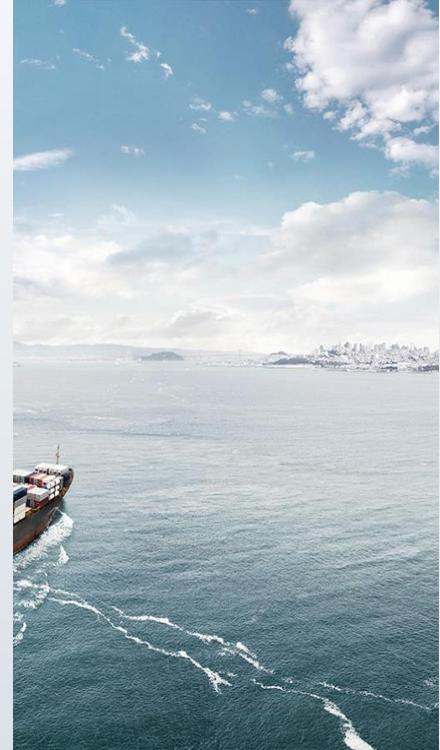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419

September 20, 2022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6
Tankers	10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Issue & Trend	20
Contact Details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NEWS

1. 인플레이션에 영향만 도미노파업...펠릭스토·리버풀 일주일 간격 파업 예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의 항만 노동자들이 두 자릿수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잇따라 파업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RPI)은 최근 12.3%를 기록했다. 지난 1982년 1월 초 이후 최고치다. 노동자들은 사측에서 제시하는 한 자릿수 인상안은 물가상승률에 미뤄 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영국 최대 항만인 펠릭스토항은 두 번째 파업을 선언했다. 리버풀항도 19일부터 2주간 파업을 벌인다.

물가상승률 40년만에 최고치

영국 노동조합 유나이트에 따르면 펠릭스토항 노동자들은 이달 2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달 5일 오전 6시 59분까지 8일간 2차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21일부터 8일간 작업 중단에 나선 뒤 약 한 달 만이다.

파업 이유는 지난번과 같다.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임금도 두 자릿수로 올려달라는 게 노조 측의 요구사항이다.

유나이트는 임금 7%를 인상하고 500 파운드(약 8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측 제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대다수 노조원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1900명의 펠릭스토항 노조원 중 78%가 참여한 투표에서 82%가 사측 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노사는 지난달 파업 이후 다시 만나 임금 교섭을 재개했지만 협상은 교착 상태다. 노조는 두 자릿수 인상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인 펠릭스토독앤드레일웨이(FDRC)는 7%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5% 인상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8월 들어 7%로 인상률을 끌어올리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노조가 두 자릿수 인상을 고집하자 끝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FDRC는 홍콩계 글로벌 항만운영사인 CK 허치슨의 자회사다.

I . NEWS

유나이티드 사무국장 샤론 그레이엄은 “펠릭스토항과 CK 허치슨은 매우 부유하지만 공정한 임금안을 제시하기보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FDRC 는 7900 만파운드(약 1300 억원)의 이익을 냈고 모회사인 CK 허치슨은 300 억파운드(약 48 조원)의 매출을 거뒀다. 그런가하면 리버풀항 노동자들도 임금 협상이 삐걱거리자 파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역인력과 유지보수 엔지니어 등 총 560 명 이상의 리버풀항 노조는 이달 19 일부터 다음달 3 일까지 2 주간 조업 거부에 나설 예정이다. 파업 기간으로만 보면 펠릭스토항보다 길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15 일 전체 노조원의 88%가 참여한 투표에서 9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리버풀항의 임금 협상도 펠릭스토항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측인 머지독스앤드하버(MDHC)는 7%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자 노조는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조는 “지난해 3000 만파운드(약 480 억원) 이상의 이익을 낸 MDHC 는 약속한 지난해 임금 협정을 이행하고 올해 인상안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DHC 는 영국 억만장자인 존 휘태커가 이끄는 필그룹 소유다. 이 그룹은 조세피난처인 맨섬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호주 투자회사인 오스트레일리아슈퍼가 2 대 주주다.

영국 항만의 연이은 파업에 컨테이너선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 물동량의 48%를 처리하는 항만의 파업으로 머스크 에버그린 MSC 등 주요 선사들의 해운 서비스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선사들은 펠릭스토항 기항을 중단하고 대체 항만으로 부랴부랴 뱃머리를 돌렸지만 영국 수출입화물의 운송 지연을 막긴 어려웠다.

에버그린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2 만 4000TEU 급 <에버앨럿>(EVER ALOT)호가 영국 지역 운항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머스크와 MSC 는 인근 런던게이트나 사우샘프턴을 비롯해 프랑스 르아브르, 벨기에 안트베르펜(안트워프)에서 펠릭스토항 화물을 처리해야 했다.

대체항 없는 리버풀항 파업 직격탄

영국 서부에 위치한 리버풀항은 동안 지역에 있는 펠릭스토보다 규모는 작지만 대체 항구가 주변에 없어 파업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을 것으로 보인다.

I . NEWS

영국 해운전문지인 로이즈리스트는 덴마크 선사 머스크는 파업이 진행될 경우 북유럽과 미국 동안 지역을 연결하는 TA4 서비스에서 리버풀 기항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파업에 대응해 비상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프랑스 CMA CGM 은 “다양한 해운 노선과 복합운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전 배송을 포함한 대안책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리버풀만을 기항하는 대서양항로 전문 선사인 아틀란틱컨테이너라인(ACL)은 파업이 벌어지면 리버풀을 대신해 다른 영국항만을 기항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ACL 앤디 애벗 최고경영자(CEO)는 “파업이 발생하면 화주는 다른 관문을 찾아 떠나고 공급망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도 영국을 오가는 수출입 화물 운송이 차단되기 때문에 유럽 대륙과 스칸디나비아 지역 화물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MSC 는 리버풀항 파업에 가장 긴장하는 선사로 지목된다. 이 선사는 리버풀항을 정기 기항하는 고객사일뿐 아니라 자회사인 TIL 을 통해 리버풀 제 2 터미널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항만 파업은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와 빌헬름스하펜 브레머하펜, 벨기에 안트베르펜·브뤼헤항에서도 임금 인상안을 놓고 수차례 파업이 발생했다. 독일 항만 노조는 시간당 1.2 유로의 임금 인상과 12 개월 동안의 물가 상승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이집트 수에즈운하, 2023 년부터 통행요금 15%인상

수에즈 운하가 내년 초부터 모든 형태의 선박에 대한 통행요금을 15% 인상하고 드라이벌크 (건화물선) 과 대형 크루즈선박들에 대해서도 10% 인상한다고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관리국(SCA)이 17 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건화물선은 곡물, 면화, 석탄 따위처럼 용적 단위로 산적(散積)하는 배짐의 종류를 말한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가장 빠르고 중요한 뱃길인 수에즈 운하가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SCA 가 내년이면 에너지 가격과 화물 요금, 화물선이나 일반 여객선의 일일 임대료등 모든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AP, AFP 등 외신들은 전했다. 한 마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I . NEWS

오사마 라비이 SCA 회장은 " 통행료 인상은 현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하다. 운하의 운영 비용과 운하 통과시에 제공해야 하는 항법 안내 서비스 비용이 모두 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해운시장에서 SCA 는 변화의 추세에 따라 투명한 경영 방침과 매커니즘을 유지해야 하며 업계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 이후에도 수에즈 운하는 이를 이용하지 않는 대안 항로에 비하면 가장 저비용이고 효율적인 항로라고 강조했다.

3. 해양폐기물 분야 전세계 전문가들 한자리에!

60 개국 1 천여명 '제 7 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에 참여

해양수산부는 19 일(월)부터 23 일(금)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 7 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는 해양폐기물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 행사로, 전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다. 1984 년 미국에서 제 1 차 콘퍼런스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그간 미국에서만 6 차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높게 평가받아 미국 외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 주최하고,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약 60 개국 1,000 여명의 해양폐기물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이 등록하였으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 3 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회원국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의한 이후 처음으로 해양폐기물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올해 콘퍼런스는 5 일간 9 개 주제, 총 110 개 기술세션에서 800 편 이상의 발표로 진행되며 이는 지난 6 차 콘퍼런스보다 40%가량 발표수가 증가한 결과로,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기술세션, 전문가 패널 토론, 포스터 발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환영만찬, 현장 탐방, 영화의 밤, 부산의 밤 등 참석자들 간 교류를 위한 부대행사들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I . NEWS

해양환경 보전인식 제고를 위한 해양환경 이동교실 체험, 반려해변 전국대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ICC) 중앙행사 등의 행사가 콘퍼런스 주간에 연계하여 개최된다.

첫째 날 개최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의 개최국 환영사를 시작으로 리처드 스피라드 미국 해양대기청(NOAA) 청장의 영상 환영사,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영상 축하, 박진희 배우의 축하 메시지와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영상축사, 국제적인 해양환경활동가인 크리스탈 앰브로스(KRISTAL AMBROSE)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과 해양폐기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해관계자 패널토론도 준비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주제에 맞게 일회용품의 사용은 철저히 배제하고, 플라스틱 사용 감축량을 산정하여 발표하는 등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각종 오찬 및 만찬시 재사용 가능한 용기와 머그잔을 제공하고, 친환경 종이 재질의 현수막과 전시부스를 사용하며, 행사에 사용된 모든 자원은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 7 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는 심각해지는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전 세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 해양폐기물 관리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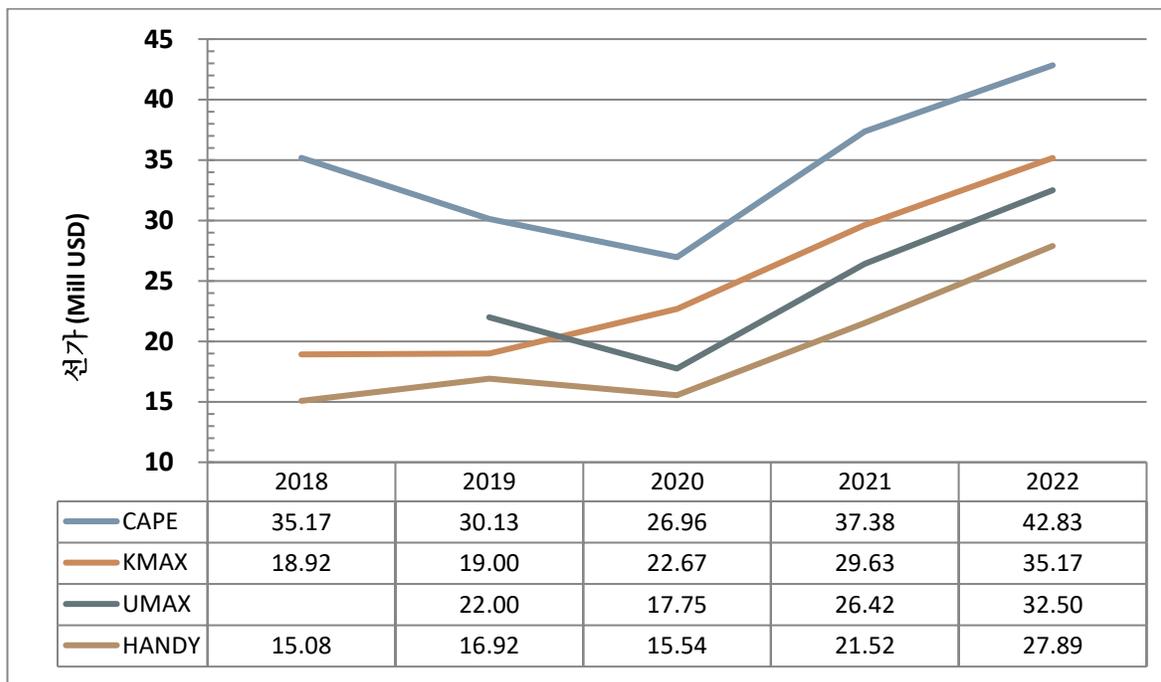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8	2019	2020	2021	2022
Capesize 180K	35.17	30.13	26.96	37.38	42.83
	11.20%	-14.34%	-10.51%	38.64%	14.60%
Kamsarmax 82K 76K (~2019)	18.92	19.00	22.67	29.63	35.17
	6.82%	0.42%	19.30%	30.70%	18.69%
Ultramax 60-61K		22.00	17.75	26.42	32.50
			-19.32%	48.83%	23.03%
SMAX 58K (~2020)	17.92	17.17	15.92		
	9.69%	-4.20%	-7.28%		
Handysize 37K '32K (~2018)	15.08	16.92	15.54	21.52	27.89
	9.37%	12.18%	-8.13%	38.47%	29.59%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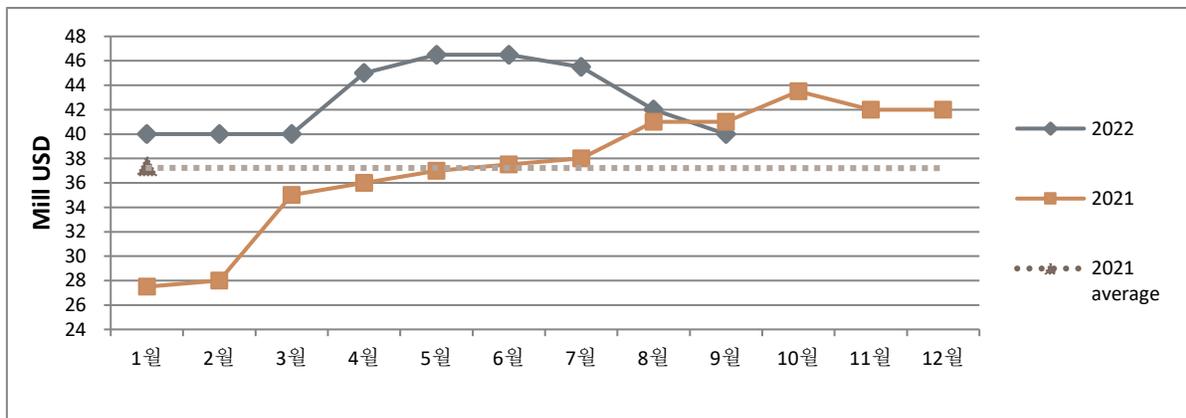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CAPE (180K)	선가	40.00	40.00	40.00	45.00	46.50	46.50	45.50	42.00	40.00	42.83
	전월대비	-4.8%	0.0%	0.0%	12.5%	0.0%	3.3%	-2.2%	-7.7%	-4.8%	--
	전년대비	45.5%	42.9%	14.3%	25.0%	24.0%	25.7%	19.7%	2.4%	-2.4%	14.6%
KMAX (82K)	선가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6.00	33.00	31.00	35.17
	전월대비	3.0%	1.5%	2.9%	2.8%	0.0%	4.1%	-5.3%	-8.3%	-6.1%	--
	전년대비	41.7%	38.0%	31.5%	35.2%	28.8%	35.7%	18.0%	4.8%	-6.1%	18.7%
UMAX (60-61K)	선가	30.50	32.50	33.00	34.00	34.50	34.00	33.00	31.50	29.50	32.50
	전월대비	1.7%	6.6%	1.5%	3.0%	1.5%	0.0%	-4.3%	-4.5%	-6.3%	--
	전년대비	52.5%	58.5%	46.7%	51.1%	30.2%	41.7%	15.8%	5.0%	-4.8%	23.0%
HANDY (37K)	선가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8.50	27.00	26.50	27.89
	전월대비	7.8%	1.8%	0.0%	1.8%	0.0%	0.0%	0.0%	-5.3%	-1.9%	--
	전년대비	86.4%	72.3%	45.5%	42.5%	39.0%	42.5%	26.7%	12.5%	8.2%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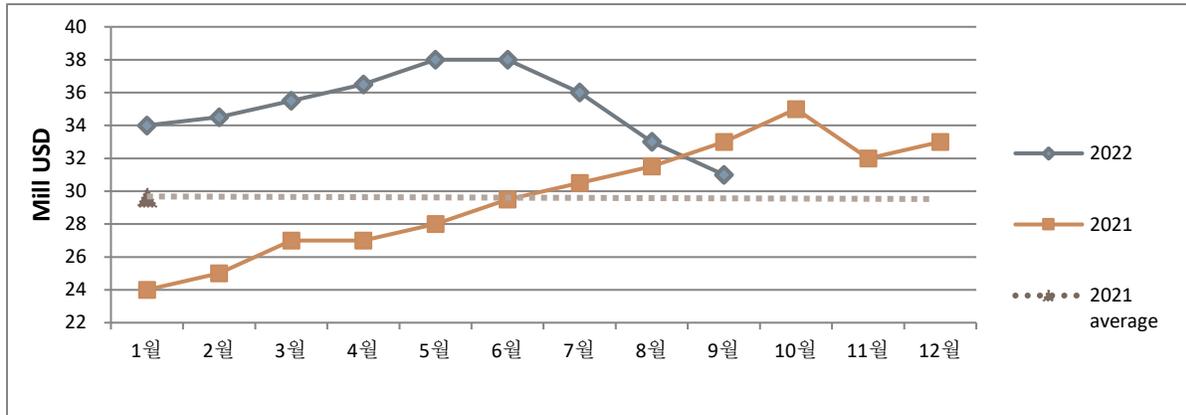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CAPE (180K)	27.50	28.00	35.00	36.00	37.00	37.50	38.00	41.00	41.00	37.38
KMAX (82K)	24.00	25.00	27.00	27.00	28.00	29.50	30.50	31.50	33.00	29.63
SMAX (58K)	20.00	20.50	22.50	22.50	24.00	26.50	28.50	30.00	31.00	26.42
HANDY (37K)	14.75	16.25	19.25	20.00	20.00	20.50	22.50	24.00	24.50	21.52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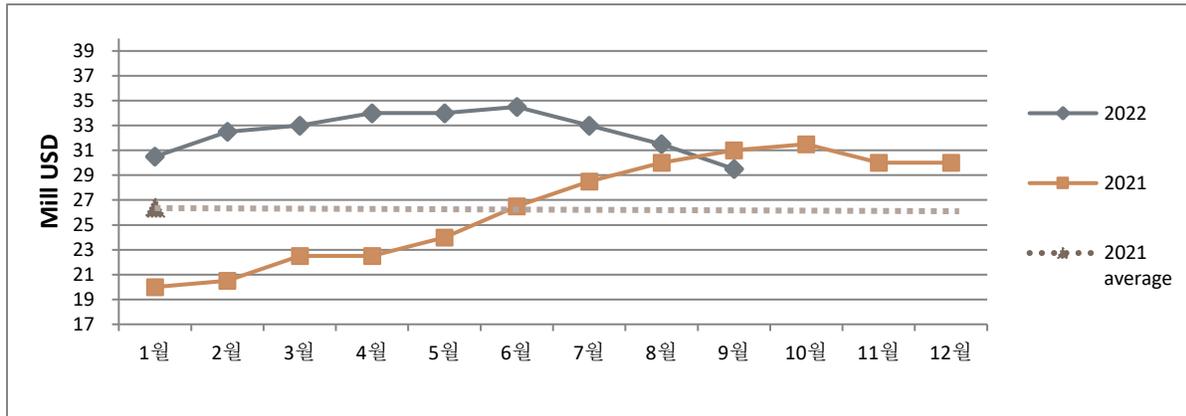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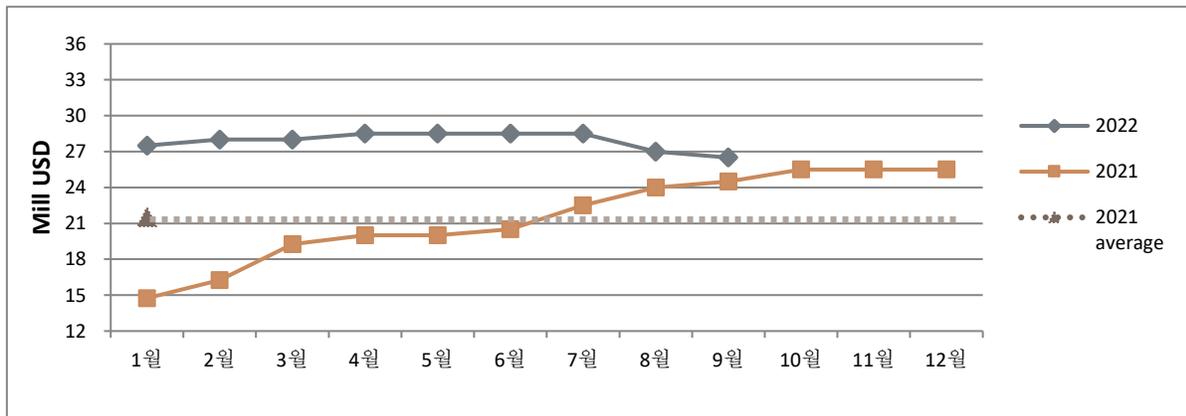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SPRING BRAVE	206,306	2007	JAPAN	B&W		17	Undisclosed buyer
BC	XYG FORTUNE	176,955	2006	JAPAN	B&W		20.8	Undisclosed buyer
BC	SUNNY SAILOR	91,443	2000	JAPAN	MITSU		9.7-9.8	Chinese buyer
BC	CORAL EMERALD	75,632	2007	JAPAN	B&W		14.5	Undisclosed buyer
BC	NAVIOS CAMELIA	75,200	2009	CHINA	B&W		15.5	Undisclosed buyer
BC	HANTON TRADER I	63,518	2014	CHINA	B&W	C 4x35t	25.4	Chinese buyer (Jinhui Shipping), Eco-engine
BC	ASL GRACE	60,259	2015	JAPAN	B&W	C 4x30t	27	Undisclosed buyer, Eco-engine
BC	SAGARJEET	58,079	2009	CHINA(JPN)	B&W	C 4x30t	16	Undisclosed buyer
BC	LIAN XIN	52,512	2002	JAPAN	MITSU	C 4x30.5t	11.3	Undisclosed buyer
BC	MARVEL	48,893	2001	JAPAN	SULZER	C 4x30t	10.5	Undisclosed buyer
BC	AMBER L	47,282	2000	JAPAN	B&W	C 4x25t	9.5	Undisclosed buyer
BC	AQUARIUS 77	35,737	2016	PHILIPPINES (JAP)	B&W	C 4x30t	21	Undisclosed buyer
BC	MAPLE AMBITION	35,513	2015	CHINA	B&W	C 4x30.5t	16.5	Chinese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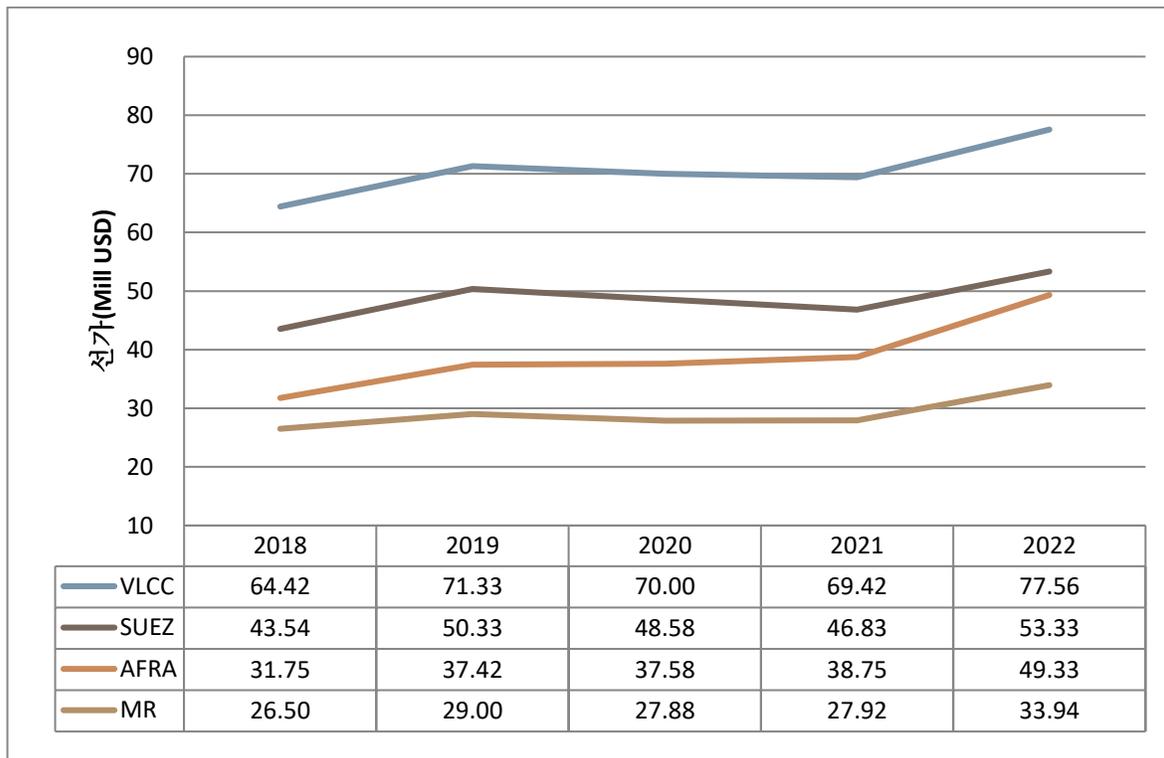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VLCC (310K)	64.42	71.33	70.00	69.42	77.56
	2.11%	10.73%	-1.87%	-0.83%	11.72%
Suezmax (160K)	43.54	50.33	48.58	46.83	53.33
	5.45%	15.60%	-3.48%	-3.60%	13.88%
Aframax (105K)	31.75	37.42	37.58	38.75	49.33
	4.81%	17.85%	0.45%	3.10%	27.31%
MR (51K) <small>*18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6.50	29.00	27.88	27.92	33.94
	11.38%	9.43%	-3.88%	-0.15%	21.59%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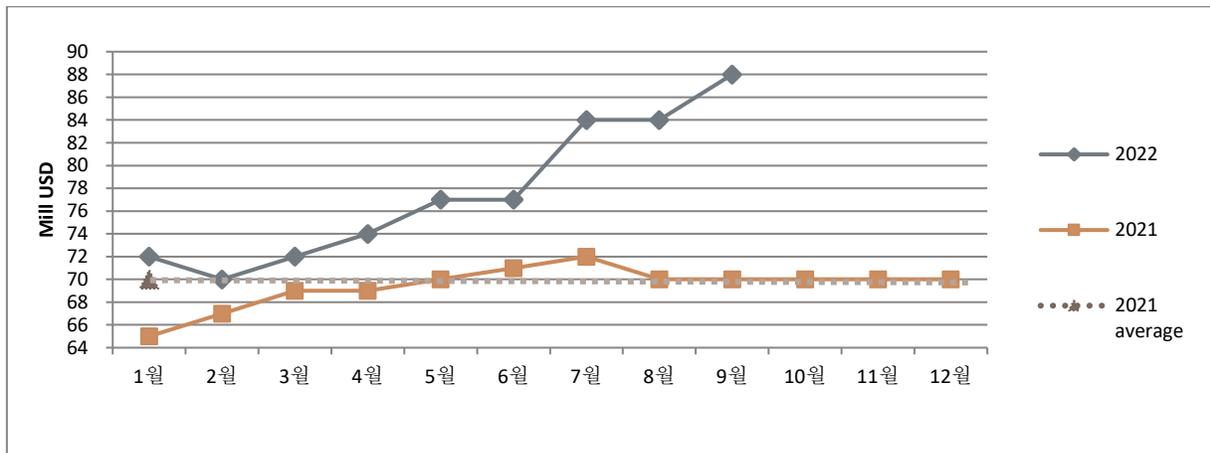




III. TANKER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VLCC 310K	선가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4.00	84.00	88.00	77.56
	전월대비	2.9%	-2.8%	2.9%	2.8%	4.1%	0.0%	9.1%	0.0%	4.8%	-
	전년대비	10.8%	4.5%	4.3%	7.2%	10.0%	8.5%	16.7%	20.0%	25.7%	10.8%
SUEZ 160K	선가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8.00	59.00	62.00	53.33
	전월대비	2.1%	-2.1%	4.3%	4.1%	2.0%	3.8%	7.4%	1.7%	5.1%	-
	전년대비	9.1%	9.3%	8.9%	8.5%	9.5%	11.3%	18.4%	22.9%	29.2%	9.8%
AFRA 105K	선가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3.00	54.00	57.00	49.33
	전월대비	9.8%	0.0%	0.0%	4.4%	4.3%	0.0%	8.2%	1.9%	5.6%	-
	전년대비	36.4%	36.4%	21.6%	17.5%	22.5%	22.5%	32.5%	35.0%	42.5%	31.3%
MR 51K	선가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7.00	40.00	40.00	33.94
	전월대비	3.4%	0.0%	-3.3%	12.1%	3.1%	0.0%	10.4%	8.1%	0.0%	-
	전년대비	9.1%	9.1%	5.5%	18.2%	21.8%	21.8%	32.1%	42.9%	42.9%	21.8%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평균	
VLCC	65.00	67.00	69.00	69.00	70.00	71.00	71.00	70.00	70.00	70.00	70.00
SUEZ	44.00	43.00	45.00	47.00	47.50	48.50	48.50	48.00	48.00	48.00	48.58
AFRA	33.00	33.00	37.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37.58
MR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8.00	28.00	28.00	2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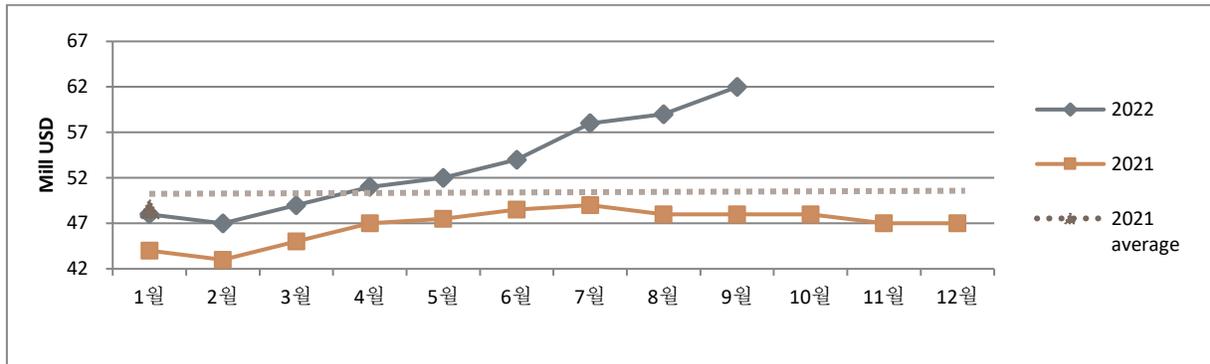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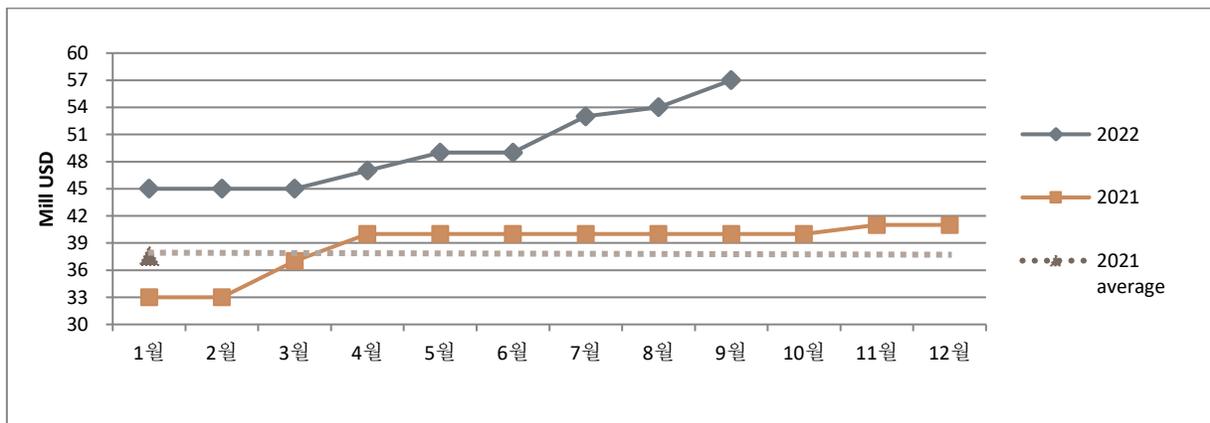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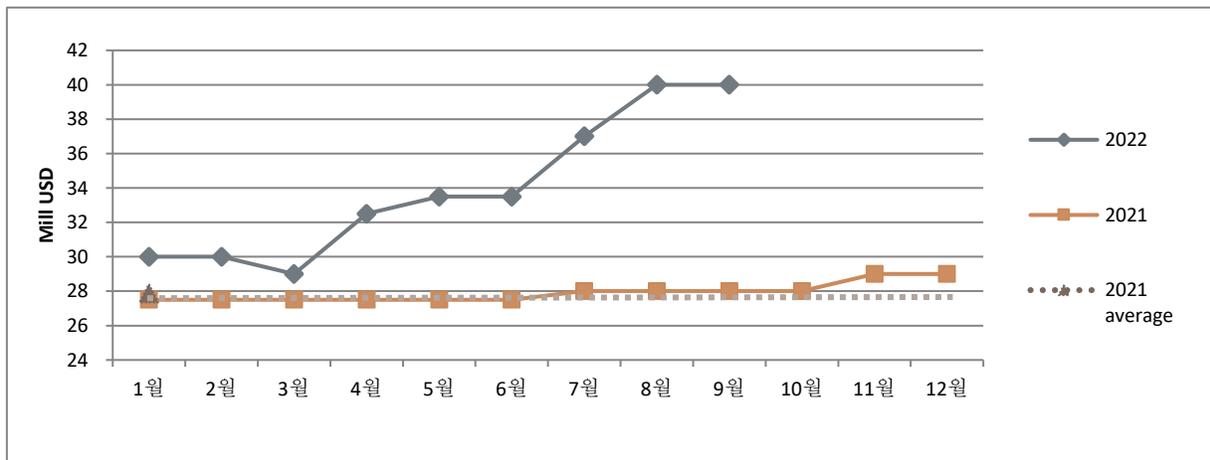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TEMA	311,620	2005	JAPAN	MAN		33.5-34	Undisclosed buyer
TANKER	LILA GUANGZHOU	159,149	2004	CHINA	B&W		23	Undisclosed buyer
TANKER	BEKS ATLANTICA	114,896	2006	KOREA	B&W		32.5-33.0	Undisclosed buyer
TANKER	PIPER	114,809	2005	KOREA	B&W		28-29.5	Middle eastern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ALBA	113,782	2005	KOREA	B&W		31.75	
TANKER	STENA PRIMORSK	65,125	2006	CROATIA	B&W		20	European buyer
TANKER	STENA PERFORMANCE	65,065	2006	CROATIA	B&W	3	20	
OIL/CHEM	STENA PROVENCE	65,125	2006	CROATIA	B&W	3	20	
OIL/CHEM	SEABRIGHT	46,177	2006	KOREA	B&W		18	Undisclosed buyer, Epoxy & Phenolic
OIL/CHEM	ASTREA	40,158	2006	KOREA	B&W	3	15.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AS SOVEREIGN	17,579	2009	KOREA	B&W	2&3	--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SG BAHARI	9,224	2009	CHINA	MAK	2&3	4.5	Turkish buyer, epoxy coated
OIL/CHEM	GAZELA	6,500	2010	KOREA	MAN		7.3	Undisclosed buyer
OIL/CHEM	GUNGA	6,500	2009	KOREA	MAK		6.7	
LPG	BW PRINCE	54,368	2007	KOREA	B&W		45	Undisclosed buyer
LPG	CLIPPER SIRIUS	54,048	2008	KOREA	B&W		50	Undisclosed buyer, Ammonia capable
LPG	SCALI REALI	3,804	2010	TAIWAN	WART		39-2EB	Korean buyer (Chemgas)
LPG	SCALI SANLORENZO	3,801	2010	UKRAINE	WART			
CHEMICAL	BESIKTAS ENGLAND	18,000	2007	TURKEY	MAK	2	24-2EB	Undisclosed buyer
CHEMICAL	SELANDIA SWAN	18,000	2007	TURKEY	MAK	2		
CHEMICAL	GOLDEN PACIFIC	17,519	2012	CHINA	B&W	2	13	Undisclosed buyer, auction sale, marline line
CHEMICAL	SOL	11,479	2007	KOREA	B&W		5.1	Indian buyer, auction sale, epoxy coated



III. TANKER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OSAKA	50,500	2008	KOREA	B&W	4,506	TEU	60	Undisclosed buyer
PCC	LAKE SUPERIOR	12,322	2007	CHINA	B&W	4,092	CARS	50	Israel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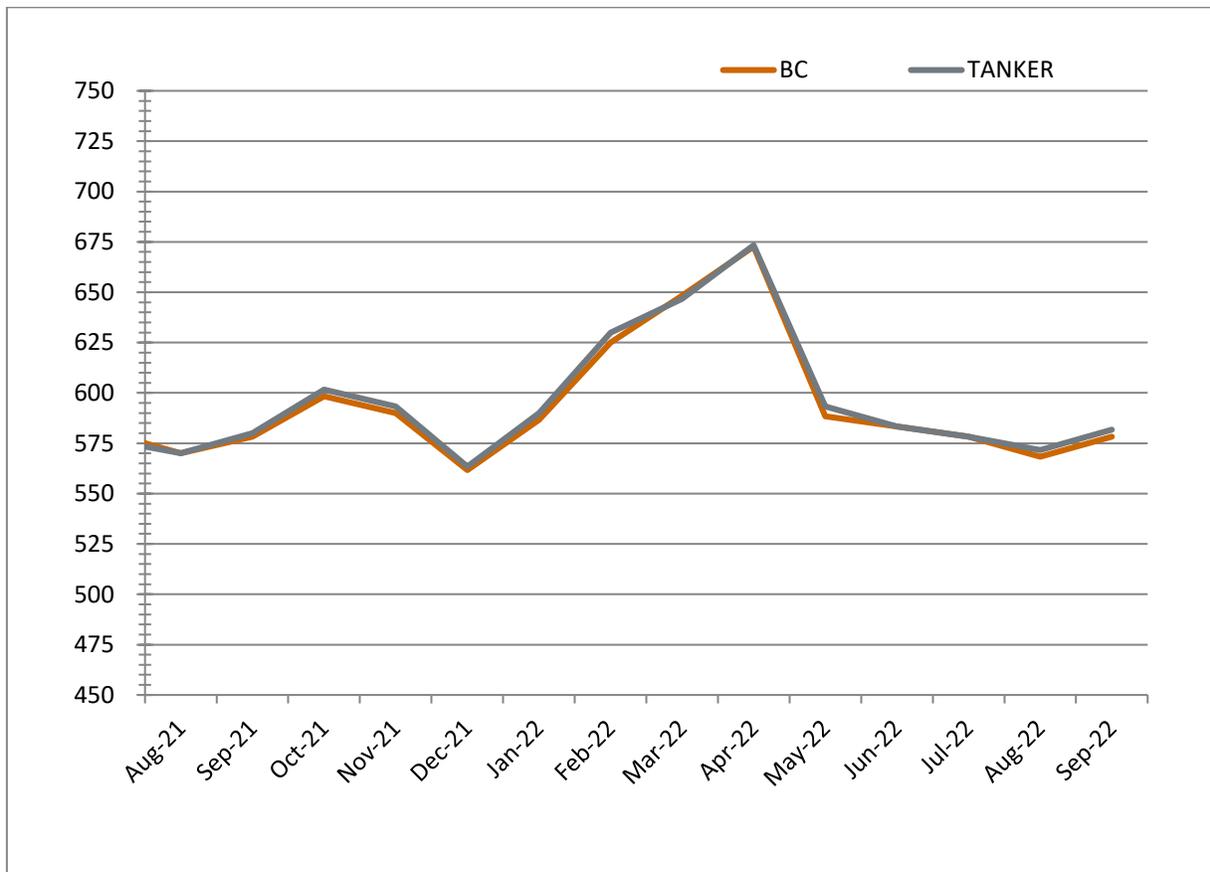


IV. DEMOLITION

1) 해체선가

	2020 평균		2021 평균		2022 평균		2021.09	2022.09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344.44	-13.1%	526.81	52.9%	605.37	14.9%	580.00	581.67	1.7%	0.3%
BC	344.58	-13.6%	529.17	53.6%	603.26	14.0%	578.33	578.33	1.8%	0.0%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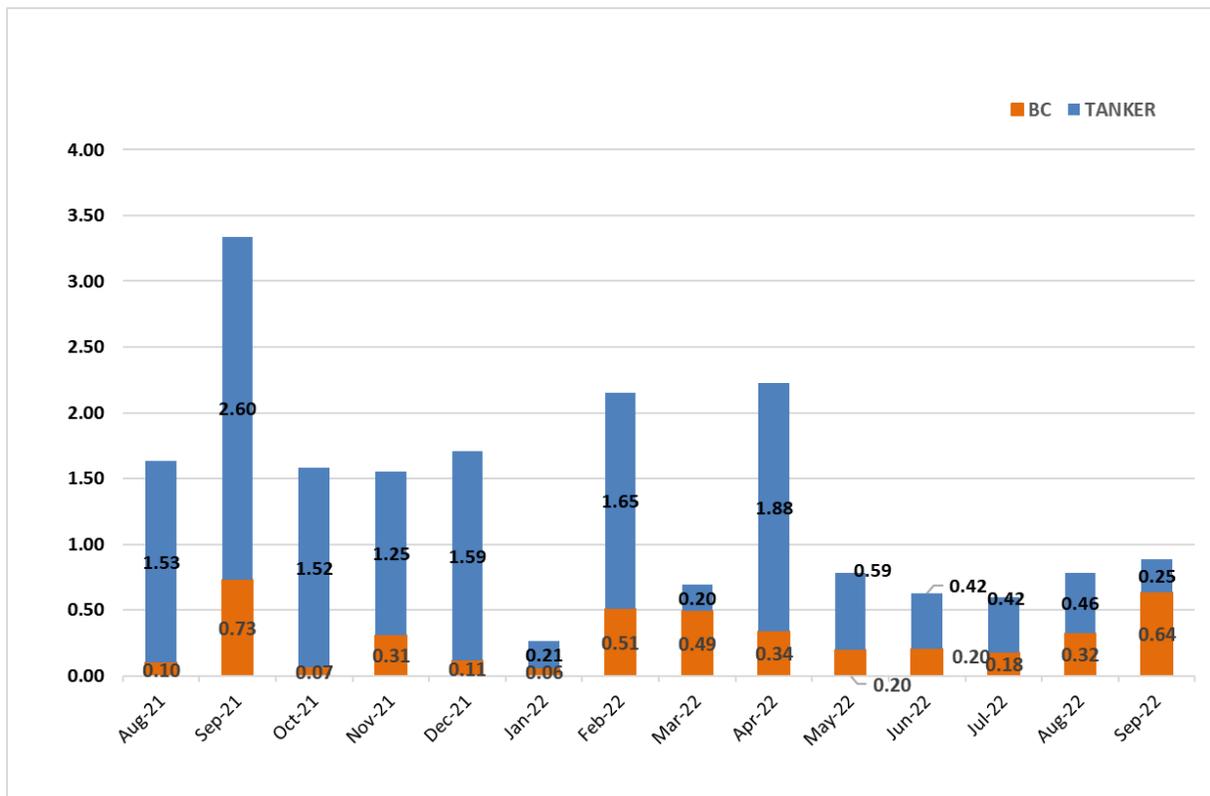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0		2021		2021.09		2022.09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YoY	No.	YoY
TANKER	3.68	112	15.66	315	2.60	43	0.25	-90.5%	5	-88.4%
BC	15.61	164	6.34	123*	0.73	8	0.64	-13.0%	5	-37.5%

*including Bulk & General cargo vessel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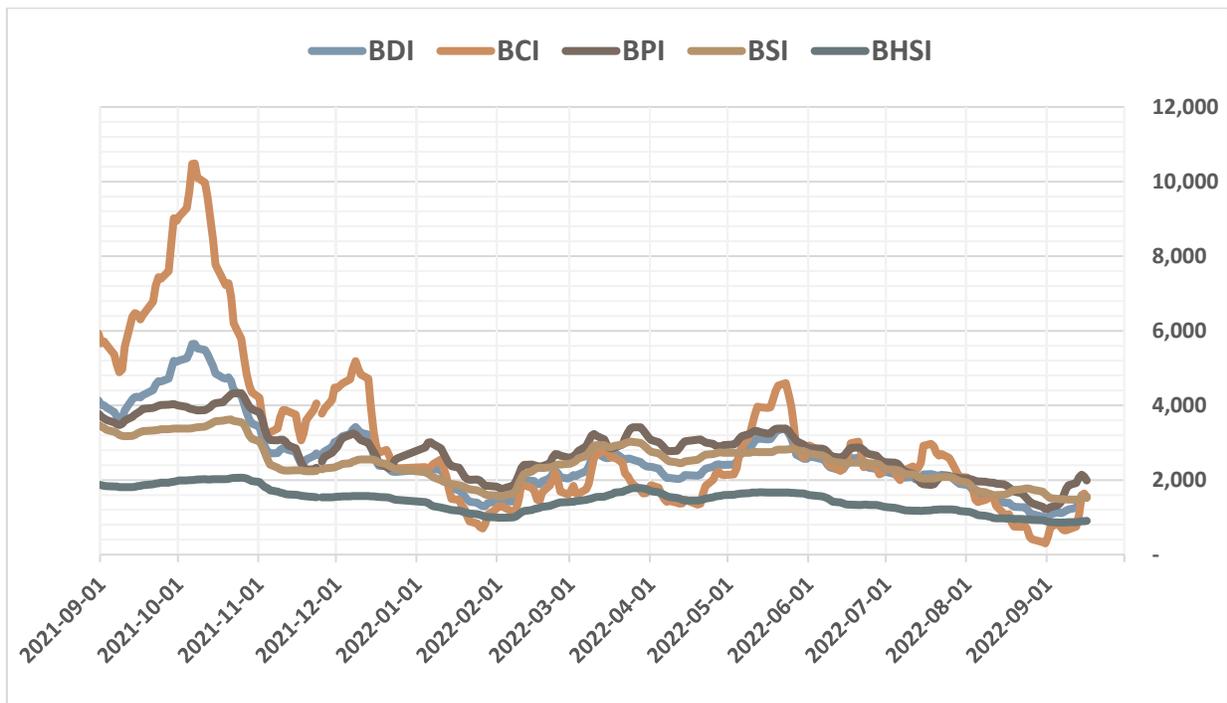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HEMICAL	SEARICH	5,437	1,773	1992	KOREA	B&W	672	BANGLADESHI
TANKER	CHEVAL BLEU	149,745	21,882	1995	JAPAN	B&W	615	PAKISTANI
TANKER	JIN SHING	785	1,711	1991	JAPAN	AKASAKA	505	AS IS BATAM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2-09-16	2022-09-09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1,553	1,213	▲ 340.00	5,650	965
BCI	1,519	672	▲ 847.00	10,485	302
BPI	1,990	1,865	▲ 125.00	4,328	1,217
BSI	1,551	1,475	▲ 76.00	3,624	1,473
BHSI	905	873	▲ 32.00	2,062	859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686.50	▲16.00	672.00	▲17.50	671.00	▼8.00
MGO	891.00	▼137.50	1007.50	▼56.00	1000.00	▼95.50
LSMGO	891.00	▼136.00	1007.50	▼56.00	-	-
IFO380	410.50	▲5.50	430.00	▲1.00	467.50	▼11.00

❖기준일 : 9 월 16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2-09-16	2022-09-08	CHANGE
미국 달러	1394.20	1385.30	▲8.90
일본 엔(100)	972.58	961.25	▲11.33
유로	1393.22	1385.72	▲7.50
중국 위안	199.92	198.52	▲1.40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ISSUE & TREND

[시사 상식]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다.

이 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법은 기업이 노조의 쟁의로 손해를 입어도 직접적 폭력이나 시설물의 파괴 등을 제외하고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2 개 민생법안을 발표하고 여기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켰다. 최근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경제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 법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93 개 단체가 꾸린 '노조법 2·3 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 조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3 조를 고쳐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 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 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 법은 지난 19 대와 20 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 등 일련의 사태로 또다시 노동계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출 처 : 연합인포맥스]



VII. CONTACT DETAILS

STL SHIPPING		President Neal S.I. Kwon (대표이사 권순일) Tel. 070-7771-6410	
SnP snp@stlkorea.com	Jack Kim (이사 김종수) Director Tel. 070-7771-6411	Nova Cha (차혜정) Team member Tel. 070-7771-6409	
Address: 101-13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LOBAL		President Marino Hwang (대표이사 황재웅) Tel. 070-7771-6400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ops@stlkorea.com	Jena Ahn (차장 안지영)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5	Joanne Jin (과장 진정식) Manager Tel. 070-7771-6406	
Chartering biz@stlkorea.com	Sancho Kim (상무 김현진) Managing Director Tel. 070-7771-6404	Mike Hong (부장 홍창목)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Fleet Operation biz@stlkorea.com	H.S. Lee (부장 이현성)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Research & Operation snp@stlkorea.com	Anna Lee (과장 이해란) Manager Tel. 070-7771-6403	Joovi Park (대리 박주비)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Agency Operation operation@stlkorea.com	Henry S.H.Oh (차장 오수현)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2	Jennifer Park (과장 박영단) Manager Tel. 070-7771-6407	Hayden Son (대리 손호영)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01
Tel. +82-2-776-0840 (Rep.) Email: seoul@stlkorea.com website: www.stlkorea.com Address: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에스티엘 지투어_STL G TOUR		전남요트아카데미_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영하	Tel. 1661-8388 Tel. 070-4800-0151 Fax. 02-6499-8388 www.stlgtour.com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진행	Tel. 061-247-0331 Tel. 010-2777-4027 Fax. 061-247-0333 www.stlyacht.com academy@stlyacht.com